

# 시교육청 '방학중 무상급식' 추진...직영방식 불투명

학교마다 위탁급식 등 자율 운영  
초등돌봄·유치원 등 1만명 대상  
학비노조와 급식 시행 갈등 여전  
"직업병 증가 등 우려...중단해야"

광주지역 교육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방학 중 급식'이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범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초등 돌봄학생과 방과 후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을 직영·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 밝혔지만, 직영 방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을 반대하는 급식 종사자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경선 시교육감의 '2호 공약'인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을 직영과 위탁급식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실을 통해 직접 점심을 제공하는 직영방식과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이나 단체음식을 학교로 배달해 식사하는 위탁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방학 중 급식은 학부모 부담(유상)으로 실시해 왔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급식학생 5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

급식을 ▲50명 초과 급식대상자 학교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급식대상의 경우 초등학교 150개교, 유치원 126곳(병설 114원·단설 12원) 등 유·초등학생 약 1만여 명이다.

위탁 급식 단가는 한끼 7,500원으로, 시교육청은 여름방학 무상급식을 위해 총 23억 4,000만원을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기본 급식 인력 3명(영양교사·조리사 등)을 일괄배치하며, 급식 학생 수에 따라 조리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8월 각급 학교에 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배포했다.

직영급식 대상 학교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근로 동의를 거쳐 급식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방학 중 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지역 교육단체와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광주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730명은 공공운수 노조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여성노조)에 각각 소속돼있다.

학비노조는 "학교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급식노동자들을 개별로 만나 설득에 나서는 것은 교육감을 쫓겨내고 일선 교사와 정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

지이다"면서 "방학 중 급식은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직업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불법 행위이므로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근로 동의를 받지 못해 직영급식이 어려운 경우 위탁급식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이 학생·학부모·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을 거두며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남구민 가족 축제 지난 9일 오후 광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남구민 가족 축제 남쪽Family가 뒀다'에 참가한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카드 뒤집기 등의 게임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 북구시설공단, 2단계 사업 확대...위탁 업무이관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이 문화·체육 시설 19곳의 위탁 관리 업무를 이관, 2단계 사업 확대에 나섰다.

10일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까지 2단계 관리위탁시설 인수·업무 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올 하반기 중 완공·개관을 앞둔 문화·체육 시

설의 관리 수요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다.

2단계 대상 시설 가운데 행복어울림센터, 중흥·신용·일곡·운암도서관, 북구문화센터 등은 위탁 관리 사업 이관을 마치고 운영 중이다.

올해 9월 안으로 완공 예정인 체육 시설 반다비체육센터, 북구종합체육관, 우산생활체육관 등도 이달 1일을 기해 공단 관리 시설에

포함됐다.

공단은 이밖에도 실외 체육시설 10곳을 맡아 관리·운영한다.

공단은 2단계 사업 확대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 25명을 추가 채용, 인사 발령까지 냈다. 공단 근무 직원은 35명에서 6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공단 조직은 1실 2팀에서 1본부 4팀(경영지원·생활시설·체육시설·시설관리)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최환준 기자

## '붕괴사고 비밀누설 혐의' 구청 공무원 불송치

직접적인 증거 확보 못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관련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구청 공무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하고, 관련 수사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

A씨는 6명이 사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공사 현장 관련 단속·점검 정보를 건설사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

을 했지만, 비밀을 누설했다고 불만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상 비교적 정확한 비밀 누설 경위가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 외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정 수사권 조정 전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1차 종결했다.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예견된 사안이었으나, 이날은 관련 서류의 검찰 송부로 절차상 조치가 마무리돼 관련자에게 해당 처분이 통보된다. /최환준 기자

## 전남교육청, 추정 1조2,382억 편성

교육 안전망 구축 중점

전남도교육청은 1조 2,38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829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3억원, 자체수입 270억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4조 3,330억원 대비 28.6% 늘어난 5조 5,712억원이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회복 지원과 이를 통한 교육회복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 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에 따른 '전남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무게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노후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사업 투자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재정변동 및 대규모 사업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적립에도 무게를 실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향상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교육회복 지원 99억원 ▲학교방역인력지원, 감염병예방방역물품구입, 중대재해예방관리 등 교육안전망 구축 185억원을 편성했다. /최환준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b>20분</b>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b>2분</b>, 장성 IC <b>5분</b></p> <p><b>총 1760평</b>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1) 감평가 (시세) <b>9억</b> 매매가 <b>7억</b> (용4억가)</p> <p>2) 월수익 <b>350만</b>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1) 특수반모집 -&gt; <b>유치권</b>,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p> <p>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p> <p>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p><b>010-6670-9800 (062-382-5500)</b></p>		